

## ‘제 27회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 열려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 및 과학기술 관련단체 간의 유익적인 연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열리는 과학기술인 테니스 대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주최로 지난 10월 26일 서울 양재동 양재테니스클럽에서 열렸다.

총 38개팀(복식) 7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조별



▲ 청년부 예선전 경기 모습

예선 리그 후 각조 1위 팀만 본선에 진출했던 예년과 달리, 각 조 1, 2위 2개팀이 본선에 오르는 경기 방식의 변화로 어느 해보다 열띤 경기를 치렀으며, 과학기술인들이 잠시 연구현장에서 벗어나 테니스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각 부별로 진행된 경기결과 우승은 ▷노년부: 정봉영, 이봉준 팀 ▷장년부: 대한치과보철학회 이근우·박성환 팀 ▷청년부: 한국체육학회 이흥구·박익렬 팀이 차지했다.



▲ 청년부 우승팀(오른쪽)이 대회운영위원장(정봉영 고려대 교수)과 김상선 과총 사무총장으로부터 트로피와 부상품을 건네받고 있다.

## 재학중 성적 우수자 이공계 국가장학생 추가 선발

152개 대학 2,121명, 2007년 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국내 이공계 152개 대학의 재학생 2천121명이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추가 선발되어 '07년 2학기 등록금(1회 지원) 전액을 지원 받게 됐다. 이번 장학생은 전국대학에서 학업성적이 탁월한 성적우수자를 추천받아 선발하였으며, 성적우수 재학생 1천877명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한 저소득층 우수학생 24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149개 대학 1천325명에게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 바 있어, 올 한해동안 지원규모는 총 3천446명 107억 원에 이른다. 이공계 대학 성적우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정부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공계국가장학사업이 신입생(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선발) 위주로 선발되는 점을 보완·개선하는 차원에서 매년 추진되고 있다.

## ‘2007년도 신기술(NET) 예정기술’ 발표

146개 기술 중 총 38개 선정, 기계·소재분야 최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NET) 예정기술 38개가 선정·발표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업 등에서 신청한 146개 기술에 대해 1차 서류 및 면접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38개 기술을 2007년도 제3회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기업 규모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소재분야 14개, 전기·전자분야와 건설·환경분야 각각 7개, 화학·생명분야 5개, 정보·통신분야 3개, 원자력분야 2개 기술이며, 중소기업 기술이 25개, 대기업 기술이 9개, 공동 신청 기술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신기술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기간(11.7~26, 20일간)과 3차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중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며,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정부기술개발자금 및 시중은행 기술개발자금을 통한 우대지원, 조세지원, 홍보 등을 통해 상용화를 지원받게 된다.

## 국제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글로벌연구실 추가 선정

고려대-사카고대·캘리포니아대 / 서울대-매사추세츠대 등 5개

핵심 원천기술분야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공

## 부산대학교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 개소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의학 연구를 위한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가 경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지난 11월 8일에는



▲ 부산대학교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에 설치된 13MeV 사이클로트론과 부대장비

부산대학교에도 설치됐다. 과학기술부의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사업에 따라 설치된 이 센터는 첨단 암 진단 기기인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PET)’에 이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여 부산·경남권역의 PET센터에 보급하고 지역의 대학교, 연구소들과 연계한 최첨단 핵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부산대학교에 설치된 국산 사이클로트론은 2002년 한국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하여 의료기기 업체인 삼영유니텍이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것으로, 3대 이상의 PET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뿐만 아니라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의 국산 사이클로트론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사업은 2005년 경북대병원, 2006년 조선대학교에 이어 부산대가 세 번째이며, 앞으로 강원대,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동연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부의 글로벌 연구실 5개가 추가로 선정되어 향후 해외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추가 선정된 글로벌연구실은 고려대-시카고대·캘리포니아대, 서울대-매사추세츠대 등 5개다.

글로벌연구실은 핵심 원천기술분야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심화 단계의 실질적 국제공동연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총 12개를 선정, 운영중이며, 연구실당 연간 5억원 내외의 정부출연연구비를 3~9년간 지원받음으로써 해외 미래원천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미주기술협력과 02-2110-3811

## 연구장비 공동활용으로 예산 낭비 막는다

### 과기부,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요구예산 중복성 검토

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시 32개 부·청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409종 1천 578억 원)를 심의한 결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52종 199억 5천만 원) 예산을 삭감·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연간 약 5천억 원이 투자되던 연구장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가 없어, 중복 도입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은 올해말까지 연구장비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연구장비 정보망(KEOL, www.equip.or.kr)에 등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2020년, 우리도 달탐사위성 발사”

### 정부,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마련

2017년 300톤급 한국형발사체(KSLV-II) 자력발사, 2020년 달 탐사위성 제1호 발사, 2025년 착륙선인 달탐사위성 제2호 발사 등 우주개발을 위한 세부 일정과 기술 확보전략을 담은 정부의 구체적인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20일 제 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은 지난 6월 20일 수립된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목표, 추진일정, 우주기술 확보전략을 구체화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 과학관을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허브로 육성

2012년 120개, 2022년까지 과학관 200개 확보

과학기술부와 (사)전국과학관협회는 지난 11월 7일 '제2차 과학관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2012년 까지 과학관 120개(100개 운영, 20개 건립중)를 확충하고 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는 2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학관을 과학기술문화확산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및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관계부처 검토의견과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12월 중 최종 확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08년 11월 개관예정인 '국립과천과학관'의 최근 건설현장모습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부 우주개발정책과 02-509-7781

## 차세대과학교과서, 전국 355개 고교에서 채택

주문부수 기준 시장 점유율 4위로 성공적인 출발



지난 2005년 개발되어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보급되는 고등학교 1학년용 '차세대과학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차세대과학교과서가 전국 355(16.2%)개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로 채택되어 10만 여부(14.5%)가 주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2개 출판사 중 4위(주문부수 기준)로 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명도 높은 출판사와 경쟁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을 해 보면, 시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학교가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른 채택 현황을 보였으며 경기, 경남, 강원, 전북, 제주 등은 20%가 넘는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차세대과학교과서는 과기부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05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2월 개발을 완료한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서, 기존교과서와 차별화를 위해 물질, 지구 등 6개 영역, 58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한 현장 사진과 화보가 풍부하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실험·탐구활동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차세대과학교과서(PDF파일)와 학생·교사용 참고자료는 차세대과학교과서 웹사이트(<http://textbook.ksf.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서울 마포구 소재 (사)검정교과서협회 상설직매장(02-323-4682)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과기부는 고1용 과학교과서의 성공적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초등 3·4학년(교육부와 공동 개발)과 중학교 1학년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연차적으로 초·중학교 과학교과서 개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R&D전문인력·관리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개원

24만명에 달하는 국내 연구계, 학계, 산업계 R&D 전문인력의 끊임없는 자기계발, 성장과 변화·혁신을 견인할 R&D 인력 전문교육기관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초대원장 문유현)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원했다.

과학기술부 소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설로 설립되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은 지난 11월 29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200여명의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개원 및 환판제막식을 갖고 'KIRD 운영 및 중장기 발전 기본 구상'도 발표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정비가 우선"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물리적인 교육원 공간확보와 조직 구성체계 등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 042-820-5600 ☎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